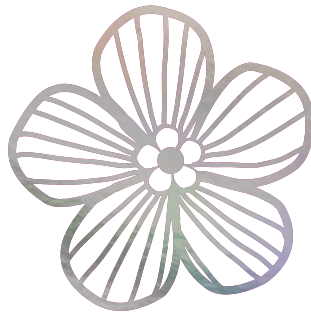




Ewh@ro Vol. 40

이화로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1914



1930



1939



1964



2008~

EVER
WOMAN
HAS
AMBITION

1886년, 배움의 씨앗을 뿌린 이화
131년 동안 시대를 앞선 혁신과 도전을 통해

이화, 만개하다!

이화 만개하다

이화로



가면



세계로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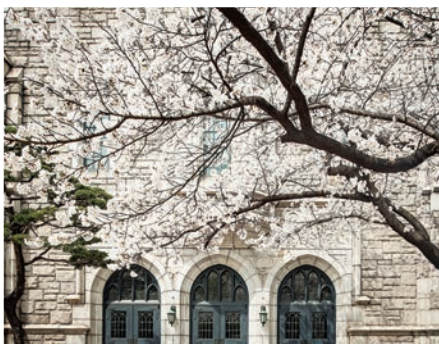
가는 길이



열린다



C/O/N/T/E/N/T/S



이화랑 인사할래요?	06
이화의 1	10
이화 그래픽	18
이화는 세계로! 세계는 이화로!	22
도전학기제	24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28
이화의 이유 있는 자신감	30
이화에게 길을 묻다	34
이화인의 새로운 보금자리 E-HOUSE	38
2018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42
신입생 장학금	44
이화로사	46

이화랑 인사 할래요?

봄

열정의 시작, 봄의 이화

이 화 와 함 께 할 1 4 6 0 일



우리, 이화와 함께 시작된
봄을 즐기자.
캠퍼스에 꽃이 피고
친구들 얼굴은 빛나잖아.
우리에게 온 눈부신 도전을
기뻐하자.
우리는 이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갖게 될 거야!



1 새 봄, 새로운 시작! 설렘 속에 배움의 첫 장을 넘기게 될 거야 **2** 이화랑 우리는 '오늘부터 1일' **3** 친구와 선배, 교수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대학 생활! 어느새 훌쩍 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거야 **4** 봄이면 꽃이 흐드러지게 핀 캠퍼스를 거닐 수 있어. 이화 곳곳에 숨어있는 명소를 찾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재미! **5**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이화가 주는 이 선물 덕분에 무엇이든 하든 신이 나!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우리의 열정도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고 있어.
이 열정이 모이고 쌓여
나를 만드는 거겠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도 내가 궁금해!



이화랑 인사 할래요?

여름

성장과 환희, 여름의 이화

이 화 와 함 께 할 1 4 6 0 일



- 1 파란 하늘 아래 멋스러운 이화 캠퍼스에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자!
- 2 봉사활동을 통해 맘이 주는 소중한 가치도 느낄 수 있을 거야!
- 3 신나는 축제!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제! 이화 대동제가 재미있다는 소문은 들었지? 우리 함께 즐겨보자! 4 함께 웃고 즐기는 사이, 가슴 속에 이화라는 이름은 더 깊이 새겨질 거야!





청춘의 성공은
밤의 시간을 밟고 오는 법이지.
밤이 깊을수록,
가을을 충만하게 보낼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성공을
곧 만나게 될 거야!



이화랑 인사 할래요?

도전의 시간, 가을의 이화

이 화 와 함 께 할 1 4 6 0 일



1 울긋불긋한 가을의 이화. 이화의 역사 깊은 건물과 어우러져 더욱 멋스러워 2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화인! 이화의 도전 DNA가 갖고 있는 저력에 깜짝 놀라게 될 걸! 3 열람실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열람실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화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단숨에 느끼게 될 거야 4 담금질을 통해 몰라보게 성장한 '나'와 마주할 수 있어!



1

이화랑 인사 할래요?



또 다른 출발, 겨울의 이화

이 화 와 함 께 할 1 4 6 0 일



나를 일으켜 세우고,

채워준 이화.

우리 젊음을 아름답게 성장시킨

이화에게 인사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

이화와 함께 세상으로 간다!

2



3



4

1 이화에서의 소중한 시간들, 잊지 못할 기억!
2 이제 이화를 떠나야 하는 시간! 하지만 이화에
서의 추억과 성취는 앞으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겠지 3 눈꽃이 핀 이화 캠퍼스, 겨울에
보는 이화의 풍경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 4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 활동. 세상과 사회에 대한 마음도
무르익어가는 거 같아 5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대강당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거야!

5



HISTORY

최초의 역사, 1의 역사를 쓰다



관습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불가능의 장벽을 허물며
'여성 최초'와 '한국 최고'를 만들어온 이화에게 '1'은 익숙한 숫자이다.
이화가 만드는 최초와 최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886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

이화는 1886년 메리 스크랜튼 선생 (제1대 총장)이 마련한 배움의 터전에 한 소녀가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습에 얽매어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던 소녀의 용기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출발이 되었다.



1946

대한민국 종합대학교 제1호 인가

이화는 1946년 문교부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중에서 첫 번째로 종합대학 인가를 받았다. 이는 이화가 전통적인 관습과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여성교육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를 이끌어 왔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The first

새 시대를 연 최초 신설학과

이화의 교육은 새 시대를 여는 창이었다. 이화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신설학과를 개설하고,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했다.

- 음악과 1925 • 가사과 1929 • 약학과 1945
- 미술과 1945 • 체육학과 1945 • 간호학과 1955
- 무용과 1963 • 여성학과 1982 • 한국학과 1982





1996

세계 최초 여성 공과대학 설립

여성의 공학계열 진출이 미미하던 1996년 이화는 또 한 번 비상했다. 세계 최초로 여성 공과대학을 설립해 공학의 여성시대를 준비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초로 이뤄진 혁신적 사고와 진취적인 노력은 '과학 이화'의 오늘을 탄생시켰다.



1996

세계 최초 여성 법과대학 설립

관습을 깬 이화의 도전은 계속됐다. 1950년 법학과를 설립한 이화는 1996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법과대학을 설립했다. 법조계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습의 굴레를 넘어 법조계 여성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현재 법조계에서 이화파워의 원천이 되고 있다.



2006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이화의 발전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화는 그동안의 결실을 전 세계 여성 인재와 나누기 위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제3세계 여성 인재들을 위한 EGPP, Ewha-KOICA, EGEP을 통해 이화의 축복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다.





라이덴 세계대학평가 4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위

이화는 전 세계 대학교를 대상으로 국제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라이덴 세계대학평가(Leiden Ranking)'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라이덴랭킹은 분야별로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논문들을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2011~2014년 발표된 논문을 집계한 2016년 평가에서 이화는 인용 빈도 10% 이내 논문 비율 8.0%로 국내 최고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 전국 1위

실적 위주의 기존 대학평가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 이화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49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 평가에서 이화는 4.3 만점 중 평균 3.897을 획득하여 단독 1위에 올랐다. 또한 △노동 △인권 △학생 △지역사회 △환경 △공정성 △거버넌스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학생 △지역사회 △환경 △거버넌스 등 4개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대학임을 분명히 했다.

'잘 가르치는 대학(ACE)' 선정

2016년 이화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명실공히 '잘 가르치는 대학'임을 인정받았다. ACE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화는 4년간 90억 원의 교육 투자를 받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융복합형 인재인 'THE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창조적인 자성을 바탕으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화에 최고의 대학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의 시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UNIVERSITY

최고 수준의 대학, 1의 대학이 되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이화가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는 교육부가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지표를 측정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갖춰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이화는 특히 정량지표로 구성된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국내 대학 유일의 하버드대 국제교류 프로그램 파트너

국내 대학 중 하버드와 국제교류 중인 대학은 이화가 유일하다. 이화는 2006년 하버드의 아시아 교류 프로그램인 HCAP(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의 국내 유일 파트너로 선정돼 12년째 교류하고 있다. 1차 콘퍼런스는 하버드에서, 2차 콘퍼런스는 이화에서 진행하며 서로의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최고 교수진의 열정이 만나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이화. 이화는 131년 배움의 깊이를 간직한 캠퍼스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INFRA

최첨단 대학, 1의 인프라를 갖추다

국내 대학 최대 지하캠퍼스 ECC

2008년 완공 후 이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 국내 최대 지하캠퍼스 ECC(Ewha Campus Complex). 대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지하캠퍼스를 만들어 이화의 건물과 수목을 보존하면서 캠퍼스 공간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6만 8,657㎡의 면적에 지하 6층, 지상 1층으로 이뤄진 ECC에는 수업을 위한 강의실과 열람실, 세미나실 외에도 문화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ECC는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화 정문을 들어서면 마치 계곡과 같은 광장이 보이고, 그 양면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벽이 웅장함을 자랑한다. 건물 외벽의 유리를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어둠과 조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특유의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다.

국내 대학 최초 글로벌 R&I 중심 산학협력관

2014년 개관한 산학협력관은 이화의 산학협력 활동의 중심이자 창조적 산학협력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세계적 화학기업인 솔베이는 대학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화와 산학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이화-솔베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세계적인 다국적 해외기업이 국내 대학에 글로벌 R&I 센터를 설립한 첫 사례로서 대표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총 면적 25,833㎡의 산학협력관에는 이화-솔베이 연구센터를 비롯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 서부센터,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등이 입주해 있다. 산학협력관에는 이화-솔베이 연구센터의 특수화학부문 최첨단 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핵자기공명분광기, 질량분석기, 초고분해능 현미경 등 300억 원 규모의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어 이공계 이화인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최첨단 환경 속에서 제2의 마리퀴리를 꿈꾸는 이화인들이 '과학 이화'의 오늘을 실현하고 있는 이곳으로 예비 이화인을 초대한다.

첨단으로 무장한 글로벌 마곡 제2부속병원 완공

2018년 글로벌 마곡 제2부속병원이 완공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진료시스템을 갖춘 제2부속병원은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의 실천이자 동북아 국제의료 기관이 되기 위한 전기가 될 것이다. 제2부속병원은 1,000병상 규모로 국내 최초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 환경과 국제 수준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춘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전망이다. 또한 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의 치료를 특화 육성해 중증질환에 강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제2부속병원과 함께 신축되는 의과대학은 최신 시설은 물론 기숙사까지 갖춘으로써 이화의 예비 의료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초의 길을 연 이화 DNA

이화의 인재들이 걸어간 길은 '여성 최초', '한국 최초'의 길이였다. 이화는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하였고, 1900년 박에스터 동문은 '보구여관'에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1931년 김활란 동문이 한국 여성 최초 박사학위(컬럼비아대학)를 취득하며 여성 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시대적, 사회적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남성 중심 사회의 편견을 허물다

이화 동문들은 남성들만의 직업은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1945년 양한나 동문은 남성들의 직업으로만 인식되던 경찰직 중에서도 여성 최초 경찰서장이 되었다. 1954년 이태영 동문은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가 되어 여성의 법조계 진출의 서막을 올렸다. 과학 분야로의 진출도 두드러졌다. 1961년 장혜원 동문이 한국 최초의 화학분야 여성과학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1969년 모혜정 동문은 한국 최초 여성 물리학자가 되었다.

계속되는 최초의 행진

1970년대 후반부터는 행정직 진출이 이어졌다. 1979년 김옥길 동문이 한국 최초 여성 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1988년 조경희 동문은 초대 정부 2장관으로 취임하며 더 이상 여성의 장관직 취임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했다. 1990년대 들어선 이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최초가 늘어났다. 1995년 손지애 동문은 한국 최초 CNN 지국장이 되었으며 1999년 장명수 동문은 한국 최초 신문사 여성 사장이 되었다.

131년 동안 이화를 우뚝 서게 한 것은 이화의 인재들이었다. 도전과 창조의 DNA를 보유한 이화의 인재들은 시대와 사회를 개척하며 한국 최초, 세계 최고의 이름을 새겨 나갔다. 선배에게서 후배에게로 더 깊게 전수된 이화 DNA는 이화를 이화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TALENTED

최고의 전문 인력,
1의 인재를 만든다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더욱 빛나는 이화의 저력

2000년대에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이화인의 러시가 이어졌다. 2000년 김옥경 동문이 동양인 및 여성 최초 세계곡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고, 2001년 전신애 동문은 한국 여성 최초로 미 연방정부 노동부차관보로 임명되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더욱 빛나는 저력을 발휘했다. 2001년 박혜진 동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초 여성 법의관이 되었으며 2006년 오영주 동문이 한국 여성 최초로 유엔과장이 되었다.

30대그룹 여성임원 최다 배출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이화인의 발걸음 역시 가열차다. 이화의 인재들은 각계각층의 핵심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이화가 여성 리더의 산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화인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정애 동문은 LG그룹 최초 공채 출신 여성 부사장이 되었으며, 이재경 동문은 삼성증권 최초 여성임원이 되었다. 손병옥 동문은 푸르덴셜생명 회장의 자리에 오르며 한국 직장 여성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국가고시에 부는 이화 돌풍

국가고시 분야에서 이화의 합격률은 가히 돌풍이라 할 만하다. 사법시험에서는 지금까지 67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2016년에는 10명이 합격하며 국내 대학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여성 합격자 대비 25%로, 여성 합격자 4명 중 1명은 이화인이다.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Law Clerk) 배출에서는 국내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의사, 간호사, 약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였으며, 간호대학의 경우 7년 연속 100% 합격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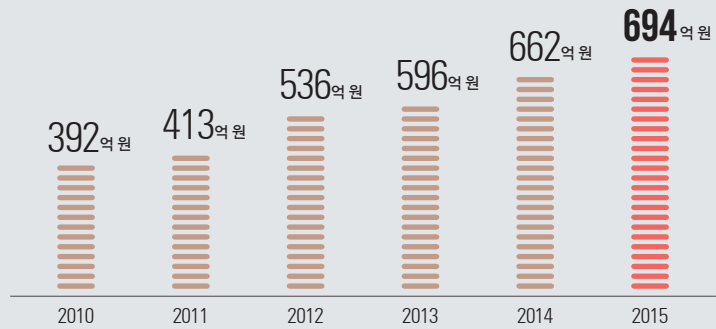
EWHA GRAPHIC

이화의 현재가 한눈에 들어오는 인포그래픽

장학금 지급

2015년 장학금 지급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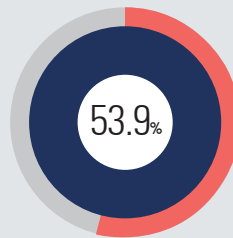
694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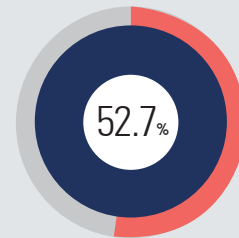
부·복수 전공 이수

2015학년도 졸업생 중
부·복수 전공 이수

5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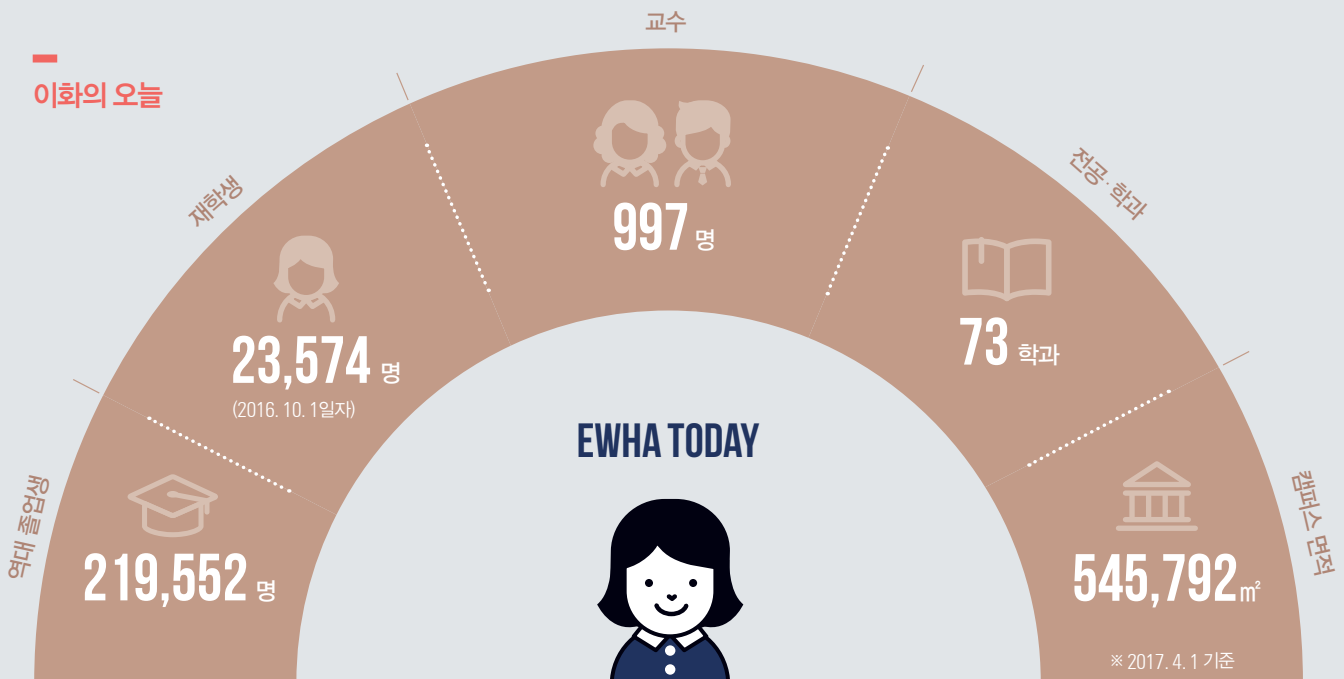


2014학년도 졸업생 3,322명
부·복수 전공 이수 1,792명



2015학년도 졸업생 3,504명
부·복수 전공 이수 1,848명

이화의 오늘



※ 자료 : 2016 이화여자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글로벌 교류



77 개국
글로벌 교류국



951 기관
글로벌 교류기관



연간 **1,200** 명
해외 대학 파견 학생



연간 **5,900** 명
이화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취업

2013~2016
공공기관 진출

278 명



최근 3년 메이저
언론·방송계 진출

57 명



교수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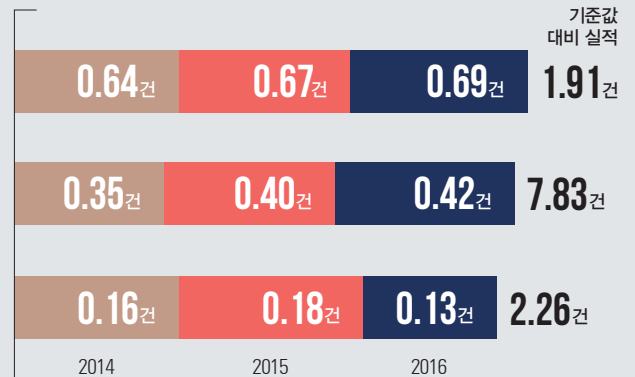
라이덴랭킹
4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 위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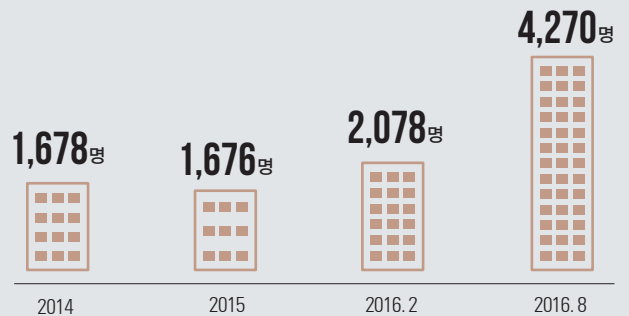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기숙사 수용인원

수용인원

4,270 명



국가고시 강자, 이화

국가고시를 휩쓴 이화의 성과

[행정고시]

행시의 꽃 재경직 수석 배출



국가고시 강자 이화의 힘, 국가고시준비반

경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고시준비반에서는 동영상 강의 수강지원, 헌법 기본핵심 특강을 지원한다. 또한 과목별 특강 및 전국모의고사, 교수출제 모의고사 및 기출해설 등을 통해 이화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공직분야 여성 엘리트를 선발하는 공무원 5급 공채시험(행정)에서 이화는 고시강자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239명의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공직에 진출하는 이화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김효라 동문(경영학 13졸)이 교육행정직 수석합격을, 2016년에는 남기인 동문(경제학 12졸)이 '행시의 꽃' 재경직 수석합격을 차지했다. 이러한 이화의 성취는 주요 남녀공학 대학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뿐 아니라 여자 합격자 대비 이화인의 수를 봤을 때 더욱 압도적인 성적이다.



합격 인원(명)

12명

2014

9명

2015

9명

2016



전국 대학 순위

6위

2014

7위

2015

7위

2016

배출한
총 합격자

239명



[사법시험]

TOP4



사법시험 합격률의 비결, 사법고시반

사법시험 합격률의 비결은 사법고시반의 체계화된 지원이다. 사법고시반은 교수출제 모의고사, 최신판례 특강, 면접대비 특강, 합격자 간담회 및 스터디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시 합격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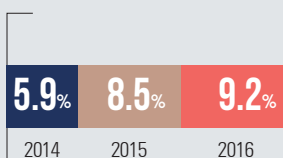
2016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의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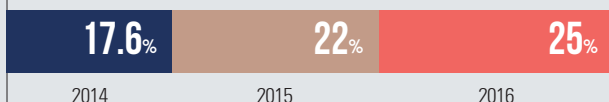
22%

17.6%

전체 합격자
대비 이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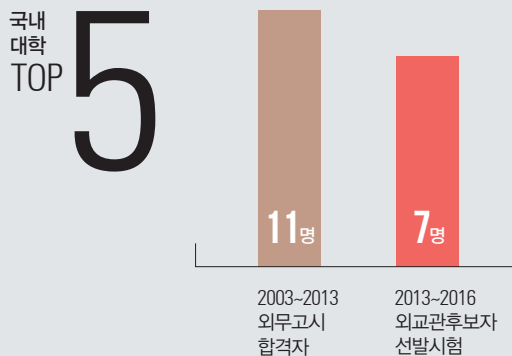


여성 합격자
대비 이화인



[외교관후보자]

수석 배출



외교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시행된 외무고시에서 이화가 배출한 합격자는 11명으로 국내 대학 TOP5에 올랐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에서는 2016년까지 총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연수를 마친 합격자 전원이 임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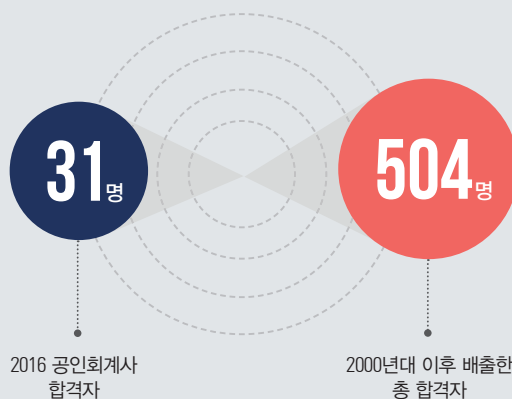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2016년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의 꿈을 지원하는 공인회계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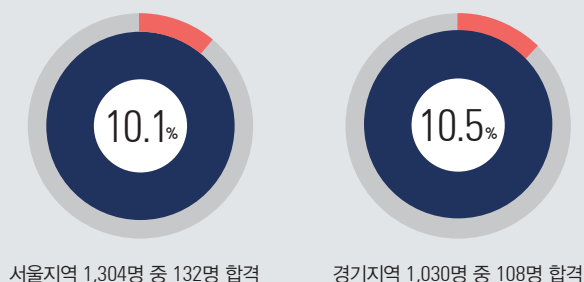
경영대학이 지원하는 공인회계사반은 입실자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학금 지급과 도서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이화인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화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지원자 대비 전국 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이화인의 높은 몰입도를 증명하고 있다. 이화가 2000년대 이후 배출한 합격자는 504명으로 2016년에는 31명이 공인회계사의 꿈을 실현시켰다. 2016년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한 이설훈 학생(경영 전공 13학번)은 1·2차 시험 모두 1등을 차지하며 '초시 동채(처음 응시한 시험에서 같은 해 합격하는 것) 수석'의 대기록을 세웠다.

[교원임용시험]

2017 서울·경기지역
합격자 10명 중 1명은
이화인



이화는 교원임용시험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도 치러진 전국의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이화인은 279명이었다. 특히 서울지역 합격자 1,304명 중 132명, 경기지역 합격자 1,030명 중 108명이 이화인이었다.

이화는 세계로! 세계는 이화로!

세계로 나아가는 이화의 남다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 Ewha - Harvard Summer School 하버드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름 계절학기



2006년 이화여대와 하버드대학이 국제교류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매년 여름 진행되는 프로그램. 양교의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교류한다.

전공인 시각디자인 외에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화-하버드 서머스쿨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청했죠.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나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의 기억이 강렬해 지금도 영상아트쪽으로 바꿨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김수현 시각디자인전공 11학번

그동안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가 적었기에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참여했었어요. 하버드대학 교수님의 한국사회에 대한 높은 식견과 하버드대학 친구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몰입도를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습시다. 수업 외적으로도 하버드대학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류를 했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었습시다.

천서윤 기독교학전공 14학번

● 이화 국제하계대학 이화에서 듣는 해외 우수 대학 강의



이화인에게는 국제 석학의 강의를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오늘과 미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971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개설되어 국제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평소 다국적 조직과 기관에 관심이 많던 제게 국제하계대학의 'Understanding Global Organizations' 수업은 흥미로운 강의를 들으며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국제하계대학 인턴으로 참여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통역을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상승했죠. 수업을 함께 들던 외국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적극성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몰입한다는 점은 이화 국제하계대학이 제게 준 선물이에요.

최민경 경제학전공 11학번



● 교환학생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꿈같은 기회



번거로운 유학 절차 없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꿈같은 기회! 이화여대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강의를 듣고,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이화여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학기로 이전된다.

네덜란드 NHL Hogeschool에서의 시간은 공부만이 전부가었던 한국에서의 삶과 달리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기업들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강의실 밖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죠.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지원 행정학·경제학전공 12학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입학 때부터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었어요. 목표한 만큼 학점관리와 토폴준비를 열심히 했죠. 미국 Baldwin Wallace University에서는 주로 제 복수전공인 경영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서 이끌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페이퍼를 제출하면 바로 피드백을 해주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주지원 화학·경영학전공 14학번

●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지도교수와 함께 현지 심화학습



방학기간 동안 전공 교수와 함께 세계 각국의 대학 및 기관을 방문하여 석학들과 공동수업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해외 심화학습 프로그램.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이나 해외 학점이전 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진환 교수님과 함께 2015년 여름 해외탐사사(유럽), 2016년 여름 해외탐사사2(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해외의 국제기구나 NGO를 방문해 각 기관에서 하는 일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죠.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이론과 현장의 조화가 중요하데, 두 분야를 동시에 경험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여진 기독교학전공 14학번

2016년 여름 Klaus Kresse 교수님과 함께 네덜란드의 건축물을 보고, 건축회사를 방문한 것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현장교육이었어요. 네덜란드의 건축이 유럽과 그동안 책으로는 많이 봤지만, 현장에서 알다일 스케일로 보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설계할 때 당시의 느낌과 감각을 복제할 수 있으라는 기대가 커요. 네덜란드의 건축그룹인 MVRDV를 방문하고, 현지 학생들의 작업물을 직접 본 것도 귀한 경험이 됐어요.

민예원 건축학전공 13학번

ACE

도전 학기제

이화에는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 자신의 꿈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실행하면서 동시에 학기로 등록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도전학기제'. 자기주도적 미래설계를 통해 도전학기제를 이수한 3명의 도전기 속으로!

이화인의 꿈을 응원하는 도전학기제

'도전학기제'는 재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여 진행하면서 동시에 한 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점에서 실천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휴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꿈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지도교수를 선정해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수행, 완료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도교수의 맞춤형 밀착 지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의 완성도 역시 상당히 높다.

도전학기제 참여 학생은 매 학기 실시되는 도전학기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다. 1차 단과대학 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심사, 3차 전문가 컨설팅의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도전학기제 참여 학생은 정규 교과목과 도전학기 교과목을 합한 18학점 이내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정규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기준을 따르고, 도전학기 교과목은 프로젝트 소요 시간 및 노력,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전학기 지원금 400만 원을 지급해 학생들이 도전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한다. 꿈의 실현과 학점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는 도전학기제.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보자.

지금 도전해도 괜찮아!



도전학기제 설계 공모전 심사

방민경 기독교학전공 1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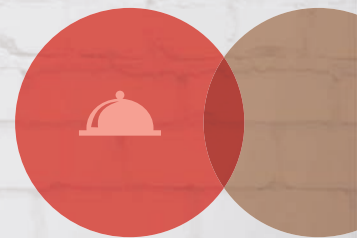
선물과도 같았던 도전학기제

도전학기 과제명

1인 가구를 위한 반조리식품 배달 유통

브랜드 'COOKCOOK'을 만들어 신선한 재료들을 패키징해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쿡키지(Cook+Package) 제품을 개발하여 교내 게시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2년 간 자취를 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지요.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소량인데 묶음 채소를 사야 하니 지출은 크고 남은 재료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1인 가구들이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간편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바로 창업이 힘든 상황이라 작은 기회라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도전학기제 공고를 보았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제도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도교수님(경영학과 윤정구 교수)께서도 '실패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실천 창업에 도전했어요. 먼저 '쿡쿡(COOKCOOK)'이라는 브랜드명을 정하고, BI 및 패키지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죠. 시제품 단계에서는 채소를 썰어 패키지를 구성하고 진공포장기계를 구입해 포장까지 완성했어요. 블로그에 올린 다양한 레시피들을 서치하고 '건강한 맛'에 어울리는 레시피를 개발해 나갔어요. 창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도전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는데요. 컨설팅과 실천 경험을 통해 아이템 보완과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죠. 저 또한 창업이 먼 이야기,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졌었는데 도전학기제는 유일하게 제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도전'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격려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도전학기제는 제게 선물과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꿈에 도전해 보라고 다독여 주었으니까요. 졸업 후에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공공성이 가미된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에 도전해 보고요.



권재원 서양화전공 12학번

영화연출가로 초석을 다진 계기

도전학기 과제명

〈PERFECT DILDO〉

도전학기제를 통해 예산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 단편영화를
완성하고 '미장센단편영화제'에 출품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 영화동아리 '누에'에 들어가 영화연출로 진로를 굳혔죠. 2학년 때는 편당 100만 원의 제작비로 단편영화 2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3학년 때 〈주머니바나나(가제)〉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제작비 문제로 그냥 묵혀두고만 있었어요. 얼마 후 도전학기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죠. 예산문제 해결, 학점 이수는 물론 지도교수의 지도와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도전학기제 3차 심사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평소 좋아하던 변영주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감독님의 조언을 듣고, 애초 제작하려고 했던 쿼어 성향이 짙은 시나리오에서 '성과 사랑의 완벽함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지금의 〈PERFECT DILDO〉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어요.

도전학기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배우 캐스팅 및 미팅, 스태프 구성, 장소 헌팅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영화제작에 들어갔어요. 특히 좋은 장비를 렌트하고, 인건비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뽑아낼 수 있었어요. 도전학기제를 통해 완성된 15분짜리 단편영화 〈PERFECT DILDO〉는 제 꿈인 영화감독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초석이 됐을 뿐 아니라 내세울 만한 포트폴리오가 됐답니다.

도전학기제를 수행하면서 현실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좋은 콘텐츠를 분별하는 능력도 커진 것 같아요. 사이사이 중간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나태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었구요. 그렇게 완성한 〈PERFECT DILDO〉를 '미장센단편영화제'에 출품했어요. 제 이름을 건 작품을 갖게 된 것도 도전학기제를 통해 얻은 큰 성과지만, 무엇보다 제작PD로서의 마인드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자현 작곡전공 12학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기회

제가 전공하는 '클래식 현대음악'은 좋은 선율의 음악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악기가 지닌 소리들을 잘 모으고 흐트러뜨려 다양하고 조화로운 소리를 구현하는 장르예요. 곡 안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야만 완성도 높은 곡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다보니 제가 그동안 작곡했던 곡들은 많아야 5개의 악기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곡들이 전부였어요. 저는 방학 때면 꼭 한 곡씩 작곡해 교내 콩쿠르와 국내 콩쿠르에 출품하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보다 앞서 도전학기제를 수행한 후배를 보면서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 도전학기제를 신청했어요.

도전학기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작곡가들의 음악을 섭렵하며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을 만나 악기마다의 현대적 연주 기법, 효과적인 소리의 구현 범위 등에 관해 자문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구축한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트럼펫 등 9개 악기로 구성된 7분 분량의 〈한여름 밤의 꿈〉을 완성할 수 있었죠.

지도교수님(작곡과 윤승현 교수)은 곡을 쓰다 막힐 때면 효과적인 음향을 구현하고 아이디어의 구성을 재편집하는 등 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곡을 완성하지 못 했을 거예요.

이렇게 완성한 〈한여름 밤의 꿈〉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제 작곡 콩쿠르'에 출품할 수 있었어요. 수상자에 제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첫 해외 콩쿠르 도전에 성공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껴요. 또 이 곡으로 교내 '이화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의 곡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도전학기제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기회'였어요. 더 많은 이화인들이 도전학기제에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해요. 훗날 꿈을 이루는 데 굉장한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전학기 과제명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제 작곡 콩쿠르' 출품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트럼펫 등 9개 악기로 구성된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 for Piano Concerto)〉을 작곡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제 작곡 콩쿠르'에 출품



Let's Start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청년
창업의 메카



도전과 희망이 푸르게 자라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기업을 정신을 학습하면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청년 창업 문화거리를 조성했다. 이화여대에서 학교 정문 옆 골목 내 점포를 직접 임대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대 1년 간 임대료, 세무·회계·법률 컨설팅, 멘토링 지원은 물론 이화미래설계 장학금까지 지급된다.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조성 후 서울지역 대학 상권 중 성장률이 더했던 이 골목에는 도전과 희망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다.

청년 창업의 꿈이 자라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상점들의 간판은 초록색이다. 봄의 파릇함을 담은 이 상점들에서 청년 창업가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 ‘이화 스타트업 52번가’에서 ‘E·공빠농’은 조금 특별하다. 다른 상점들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창업 희망자를 공모해 선정된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반면 ‘E·공빠농’은 디자인대학원 크래프트디자인전공이 운영하고 있다. 공빠농(Compagnion)은 수공예길드조합이라는 의미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만든 수공예작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학교에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무렵은 크래프트디자인전공의 첫 졸업생이 나올 즈음이었어요. 학생들

이 졸업하면 취업이나 개인작업 등을 하게 될 텐데, 크래프트디자인전공을 통해 만든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우리만의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를 통해 우리의 배움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자인대학원 크래프트디자인전공 차영순 교수는 ‘E·공빠농’을 비롯한 수공예장인조합을 세상에 내놓는 산파 역할을 했다. 2015년 12월 처음 오픈할 때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E·공빠농과 작품을 판매하는 아틀리에 E·공빠농의 가게 2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수공예길드조합의 가게는 5개로 늘어났다.



자폐아동의
그림을 소품과
접목시킨
‘오티스타’
제품



크래프트디자인전공
작가들이 만든
‘E·공빠농’ 제품



교육과 실습, 판매의 유기적인 융합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조성 후 이곳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골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인근의 빈 점포들은 몇 달만에 채워져 지역 상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 역시 푸르게 성장하고 있다. ‘E·공빠농’을 운영하는 강지은 씨와 김윤이 씨에게도 ‘E·공빠농’ 운영은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작품만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과 마주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객이 우리가 만든 작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작에 대한 희열을 느껴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작품의 접점을 찾아 보면 작품활동에 대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또한 김윤이 씨는 창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졸업 후 바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교수님과 작가님들이 함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창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E·공빠농’은 크래프트디자인전공 작가들의 교육과 실습, 판매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활동무대가 되었다. 크래프트디자인전공 25명의 작가가 함께 날갯짓을 맞춰 날아오르는 활동무대. 이 아름다운 날갯짓이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를 문화의 거리, 창업의 거리로 비상시키고 있다.

차영순 교수
디자인대학원
크래프트디자인전공



이화에 오면
만나게 되는 특별함

이화의 | 이유 있는 자신감



| 영역 간 경계를 낮춘

유연한 학사제도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화여대가 자랑하는 유연한 학사제도에 있다. 이화여대는 입학 후에도 자신의 소질이나 흥미에 맞는 전공을 찾거나 학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역 간 경계를 낮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영역 간 경계를 넘나들기도 수월해 자신의 전공과 완전히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전공을 찾는 것도 이화에 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L.



더 많은 영역을 배우고 싶다면

부·복수전공

새롭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냈다면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또 자신이 속한 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부전공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부·복수전공은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업에도 유리하다. 2015학년도 전체 졸업생 2명 중 1명이 부·복수 전공을 이수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부·복수전공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면

전과

입학 당시의 소속 학부 또는 학과를 변경할 수도 있다. 3~5학기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11월 말 신청을 통해 전과할 수 있다. 생명공학자를 꿈꾸는 피아니스트, IT 전문가가 되고픈 영문학도 모두 이화가 응원한다. 전입한 학과의 졸업요수 취득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싶다면

트랙

정해진 커리큘럼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것도 이제는 편견이다. 트랙은 각 전공별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개발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트랙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한 후 해당 트랙에서 요구하는 전공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외국어, 자격증,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활동을 수행한다. 자신이 설계한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듣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학사제도다.



Confidence

2.



| 새내기를 위한 배려

멘토링 프로그램 '이화다우리'

새내기들을 위한 이화의 배려가 살아있는 '이화다우리'는 선배로부터 학교생활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선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동일 학부생인 1명의 멘토(2~4학년 선배)와 3명의 멘티(신입생)가 한 팀을 이루어 한 학기 동안 활동한다. 팀별 정기모임, 단대별 모임, 교육, 특강 등을 통해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학교생활의 꿀팁을 전수받게 된다. 재학생 멘토 역시 신입생 멘티의 대학생활을 도우며 리더십을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이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선후배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가야할 곳은 단연 이화다.

| 나를 위한 학업 네비게이션

THE포트폴리오

이제 갓 입학한 새내기들은 복잡한 학습관리로 인해 당황하기 쉽다. 하지만 이화 새내기라면 이런 고민은 이제 끝! 나의 학습관리와 미래설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THE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THE포트폴리오'는 이화여대의 전공, 교양, 비교과 체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교내외 활동 등의 개별 정보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학습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THE포트폴리오(<http://THE.ewha.ac.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나의 학습현황과 이력, 트랙 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공 및 교양과목 이수현황, 지금까지의 비교과활동내역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내특강과 전시 등 새로운 교내비교과도 신청할 수 있고, 외부비교과도 등록할 수 있어 쉽고 체계적인 학습관리가 가능하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더 강화하고 싶은 역량에 따라 전공, 교양, 비교과 활동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나의 핵심역량과 사회진출역량에 대한 현황을 보며 자신의 학습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요즘, 이화의 'THE포트폴리오'는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3.





4.

미래 공학도 양성을 위한 또 한 번의 비상

엘텍공과대학

세계적인 공학도를 꿈꾸는 예비 이화인들의 귀가 번쩍 뜨일 소식! 세계 최초 여성 공과대학인 이화여대 공과대학이 엘텍공과대학으로 확대·개편되며 새로운 비상을 시작했다. 엘텍공과대학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의 융합형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차세대기술공학부 △미래사회공학부의 4개 학부·9개 전공 체제로 개편됐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학과를 보면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선도할 여성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이화의 의지가 읽힌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첨단 융합학문으로, 첨단의료기기,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학부에 신설된 사이버보안전공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문제를 해결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본 전공은 각 분야별 맞춤형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통해 21세기에 걸맞는 보안 전문가를 키워낼 방침이다. 미래사회공학부의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은 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분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신설된 3개 학과의 경우 신입생에게 'h엘텍공학인재'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의 글로벌 융복합 엔지니어를 꿈꾼다면, 엘텍공과대학의 문을 두드려 보자!

이화와 함께라면 Career-up!

학년별 맞춤형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이화에 오면 One-Stop으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다. 경력개발센터는 이화인의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해 진출분야별, 학년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1학년은 '커리어 디자인 박람회', 진로탐색 및 자기설계가 필요한 2학년은 '멘토링 School', 실질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요구하는 3학년은 '인턴십 Start Class', 실전 역량 강화가 중요한 4학년은 '취업 Master Class'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리더십훈련, 인턴십, 취업멘토링 등의 경력개발 교과목도 개설돼 전문적인 커리어 개발이 가능하다. 커리어 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화로 오라!



5.

6.



| 최신 교육연구 시설에서 의료인의 꿈을!

글로벌 마곡 제2부속병원

미래 의료인을 꿈꾸는 여학생이라면 이화에 주목해야 한다! 2015년 착공한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이 2018년 완공돼 2019년 초 개원한다. 한 가지 더 반가운 것은 글로벌 마곡 제2부속병원의 건립과 함께 의과대학이 신축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화의 미래 의료인들은 첨단 영상회의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 동시통역 시설을 완비한 강당, 최신 기숙사 등의 최고 교육연구 시설 속에서 의학도의 꿈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의과대학으로 여성 의료인 육성에 앞장서온 경험과 노하우, 거기에 최신 교육연구 시설까지 겸비되었으니 미래 의료인들이여, 최고의 의료인이 되고 싶다면 이화를 향해 전진하라!

| 진·선·미 이화정신을 바탕으로 여성 장교 양성

필승! 이화 ROTC

여성 장교를 꿈꾸는 예비 이화인에게 반가운 소식! 이화에 학군단(ROTC·학생군사교육단)이 창설돼 우수한 여성 인재들의 군장교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화는 학군단 유치심사에서 우수한 전공 역량, 글로벌 교육 인프라, 21만 이화동문 네트워크 등 이화만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2016년 2월 학군단 유치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도 높은 체력검정과 심층면접, 인성검사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30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은 이화 특유의 리더십 역량과 군인정신이 결합된 여성 장교로 거듭나고 있다.



나의 길은 어디?
선배의 길을 되짚어보며
나의 길 그려보기

이화에게 길을 — 묻다

1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Q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왠지 길을 잃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이화의 선배들을 보며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이화에 가면 저 잘할 수 있을까요?

A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이화 여대 법전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법전원에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현재 변호사나 검사 그리고 로클럭으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화는 전통적으로 법조계에서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이화 동문들도 많으니 자신감이 떨어질 때면 이화 선배들을 생각하며 본인도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전효숙

법학 73졸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신지원

법학 14졸
2013년도 사법고시
수석합격

최정지

정치외교 08졸
법전원 3기
법무법인(유)
울촌 변호사

정인혜

법학 13졸
법전원 5기
울산지검 검사

김은미

법학 83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2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Q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내 자리다’ 싶어요. 넘치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리더십, 이 모두를 겸비한 기업의 리더가 되고 싶은데요. 이와 선배 가운데 롤모델을 찾고 싶습니다.

A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겸비한 이와 동문 가운데는 여성 리더들이 많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을 무너뜨린 이와의 전통이 기업에서도 발휘되고 있답니다. 특히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가운데 이와 출신이 가장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 공직에 진출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말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싶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제 꿈이 너무 과한가요?

A 과하긴요. 건설적인 꿈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와에는 학생처럼 국가 발전에 헌신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직의 경우 남성중심적인 경향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와의 DNA를 보유한 만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5 이화 의료인 선배 가운데 롤모델을 찾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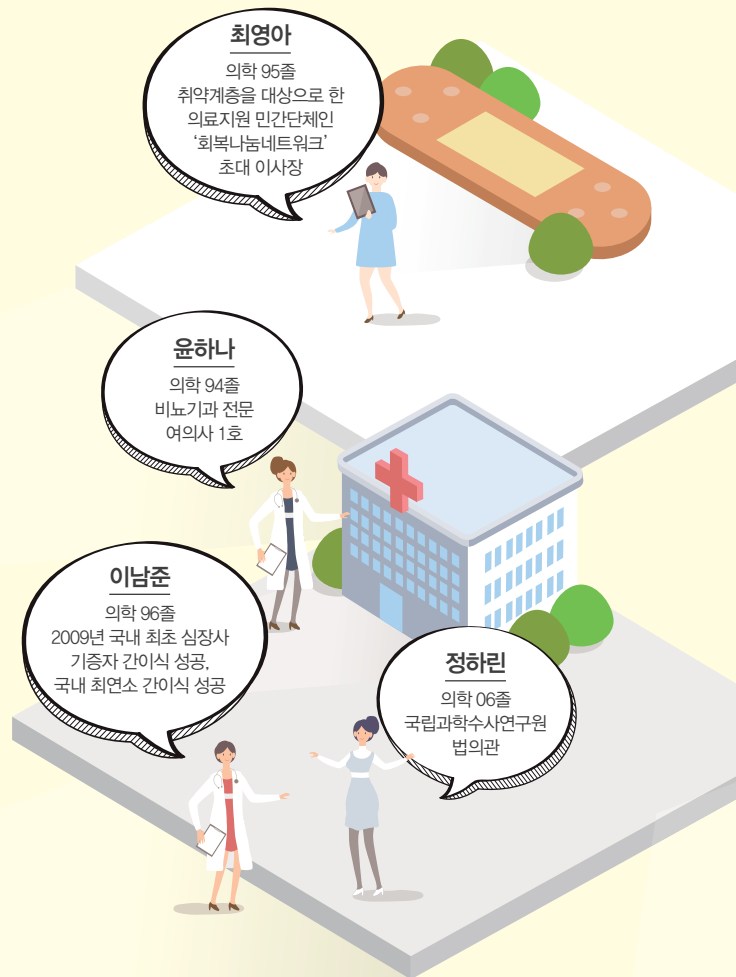
Q 의료인의 꿈을 키우는 학생입니다. 갈 길이면 분야이다 보니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존경할 만한 롤모델을 보며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의료인의 길을 가는 선배 가운데 롤모델이 될 분이라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A 의료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학습과 숙련 기간이 긴 만큼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화 선배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특히 이화에는 여성 최초 비뇨기와 전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관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분들이 많습니다. 차원이 다른 도전을 하는 이화인의 저력이 발휘된 것이죠. 그분들을 롤모델로 삼아 도전정신을 갖고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4 문화의 힘, 제가 한번 이끌어 볼게요

Q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근간이 되어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계에 진출하고 싶은 제 꿈이 아직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문화계에 진출한 분들을 보며 제 길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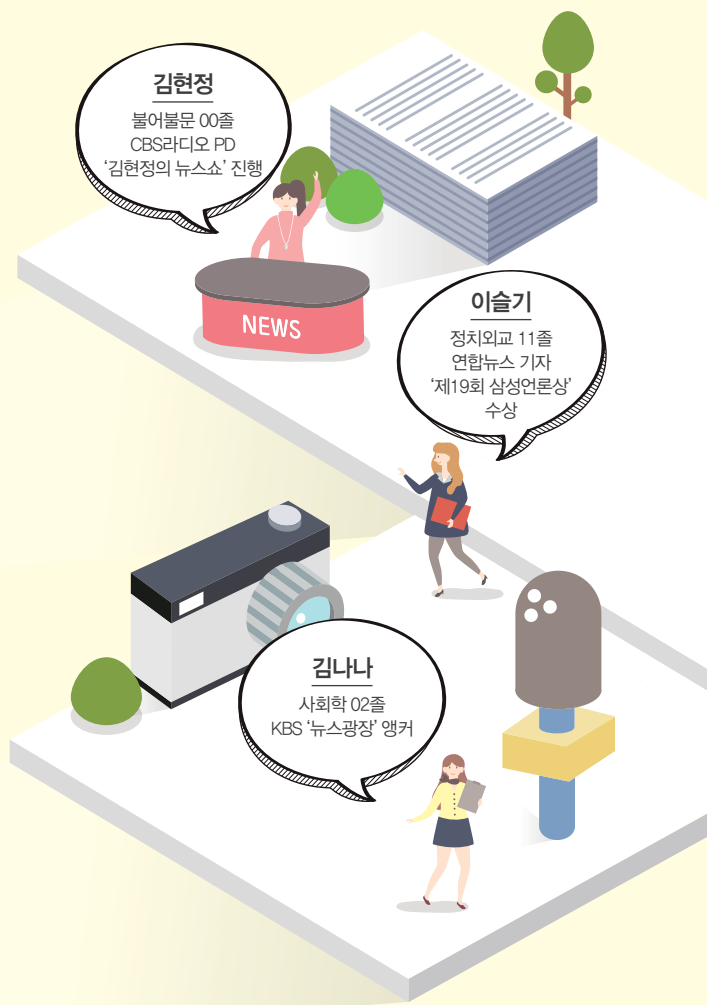
A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은 물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표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몰입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화 동문들의 경우 목표한 바를 끝내 이루고 마는 폭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사회적 잣대로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제도와 단체활동을 통해 지원해주는 이화여대.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면 이화에 와서 본인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나간 문화계 선배들의 커리어를 보면서 계획을 구체화해 보세요. 이화에서 계획은 곧 현실이 됩니다.



6 언론계 선배 여러분, 제가 갑니다!

Q 어릴 때부터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론인들을 찾아봤는데 유독 이화 출신 선배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화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갈 테니 기다려주세요!

A 와우!!! 그 자신감 정말 좋습니다. 딱 이화에 어울릴 인재인 것 같군요. 많은 이화인들이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지만, 특히 언론계에서 이화 선배들의 활약이 눈부시죠? 이화에 오면 언론계 진출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으니 꼭 이화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7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 했어요

Q 목표를 정한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직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 했어요. 좀 부끄럽기도 한데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A 사람에 따라 진로를 빠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화에 와서 교수, 선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화에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이 많으니 그분들의 학창시절과 경력을 참고하면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학년별 맞춤형 커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력개발센터와 학사관리부터 진로지도까지 책임지는 THE포트폴리오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희망과 설렘으로 바꿔줄 겁니다.

Open House

신입생을 위한
기숙사 미리보기

이화인의 새로운 보금자리 **E-HOUSE** **24시**

정문에서 직진 본능으로 올라가 만나는 학교의 가장 꼭대기, 얼핏 보면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이 바로 E-HOUSE다. 총 8개 동으로 이뤄진 E-HOUSE는 2천 명이 넘는 이화인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기존 기숙사 수용인원 1천 700여명을 가뿐히 넘어선다. 수직 상승한 기숙사 인원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존 기숙사의 개념을 뛰어넘은 '유닛형' 구조이다. E-HOUSE는 아파트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1인실~4인실로 이뤄진 사실과 거실,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구조다. 공용으로 사용하던 샤워실과 화장실 등이 유닛 안으로 들어와 편리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이 있어 집처럼 아늑하다. 유닛은 타입별로 2인~10인 유닛까지 다양하게 이뤄져 있어서 룸메이트뿐 아니라 유닛메이트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외부인들에게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선사하는 E-HOUSE, 이화인의 새로운 보금자리 E-HOUSE의 매력을 지금부터 만나 보자.



E-HOUSE Let's Go!

am
07:00



오늘은 개강날!
새 학기 첫 날인 만큼
활기찬 기분으로 Start!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아침 식사는 필수! E-HOUSE 학생식당에서는 간단한 분식부터 한식과 양식, 그리고 아시아푸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은 한 끼에 3,000원대다. 월 30식 이상 구입하면 할인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조식	07:30~09:30
중식	11:30~13:30
석식	17:00~18:45



am
07:30



am
08:30



E-HOUSE의 자랑은 유닛 안에 거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용공간이 있다는 것.

특히 거실은 유닛메이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거나 대화하기에 좋다. 유닛 내의 화장실과 샤워실, 거실은 직접 청소해야 하므로 유닛메이트와 당번을 정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등교를 해볼까. E-HOUSE는 정문에서 가장 먼 꼭대기에 있지만, 셔틀버스를 타면 학교 정문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아 오히려 걸어 등교하는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문 노선 셔틀버스

(월~금) 07:50~21:00(10분 간격)

정문→이화포스코관→E/V타워→

산학협력관→E/V타워→이화포스코관→

정문

기숙사 전용 셔틀버스

(월~금) 21:10~23:40(10분 간격)

(토) 18:00~23:40(10분 간격)

입학관→이화포스코관→한우리집

→E-HOUSE→한우리집→이화포스코관

→입학관

am
09:30



Open House



pm
03:00



기숙사에서 택배 받기가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택배 기사가 보내준 인증번호를 누르면 택배 보관함이 자동으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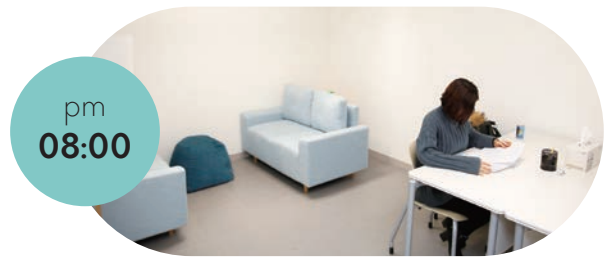
pm
09:00

저녁식사 시간을 놓쳤다면,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구입해 새침방에서 남남.



pm
04:00

사실로 가기 전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카페로 Go Go! E-HOUSE에는 위드미(편의점), 스무디킹, 베스킨라빈스, 에델리아(카페), 미농(핫도그 스토어)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pm
08:00

현대인이라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필요하다. 303동에 있는 마음E센터는 학생들의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센터이다. 기숙사 거주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 (월~금) 13:00~21:00

신청방법 센터 방문 혹은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pm
04:30

204동에 있는 문구점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 출력과 무인 복사 시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다.



pm
05:00

공부의 재미에 폭 빠져 있는 이화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독서실. 잡담에 대한 주의가 없어도 늘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pm
09:30

각 동의 모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는 새침방이 있다. 정수기와 전자레인지, 오븐 토스터기가 있어 간편하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다. 직접 음식을 해 먹기를 원한다면 개수대와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는 공용주방을 이용하면 된다.

pm
10:30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운동. 204동과 304동 지하 2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어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산소운동을 위한 러닝머신과 아령, 요가를 위한 요가매트와 짐볼 등이 있어 체력을 관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Interview

소통과 연대를 배우는 E-HOUSE

기숙사 생활의 장점은?

최혜원 일단 외롭지 않다. 내 경우 김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생활과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1학년 때 한우리집에서 생활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이수빈 통학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유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에 오가기 위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최라인 기숙사 사생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다. 그 행사들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 이화벼룩시장, 이화베토링, 미술치료, 음악치료, MBTI 프로그램 등 알찬 프로그램들로 꽉 차 있다.

E-HOUSE를 신입생에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이수빈 자립심을 기르기에 좋다.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서 모든 결정과 계획을 스스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최라인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는 방법이 기숙사, 하숙, 자취 등 다양한데 1학년 때는 학교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기숙사가 좋은 것 같다.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신입생 때는 기숙사 생활을 추천하고 싶다.

최혜원 'E-Together'라고 기숙사생을 위한 학습공동체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내 경우 관현악과의 특성을 살려 크리스마스캐롤을 연주하는 '힐링 크리스마스'를 진행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다.

지킬 건 지키는

E-HOUSE

E-HOUSE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신입생 가운데 해당 학기에 9학점 이상 등록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랜덤 추첨을 통해 기숙사생을 선발한다. 기숙사 출입문 개방 시간은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출입을 한다. 통금 시간은 밤 12시로, 외박 시에는 그날 저녁 10시 이전에 외박신고를 해야 한다. 외박신고 없이 무단외박을 할 경우 3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10점이면 퇴사 조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부인의 경우 로비 등의 편의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형요소 간소화로 수험생 부담 완화

수시모집 선발 인원 및 학생부위주 전형 선발 인원 확대

- 수시모집 선발 인원
2,092명 → **2,358명**
-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선발 인원
1,115명 → **1,384명**

성악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사범대학 각 학과, 간호학부, 전원 수시모집에서 선발

국제학특기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만 선발

정시모집 수능전형 통합 선발

- 정시모집 수능전형 모집단위 구분없이 인문·자연 계열(수능 응시계열 기준)로 선발
- 입학 후 1학년 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체육과학부 제외), 스크랜튼대학 각 학과(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 선발인원 : 389명(인문계열 211명, 자연계열 178명)
※ 의예과 : 인문계열 6명, 자연계열 22명 별도 선발

수시모집 고른기회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정시모집 기회균형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2018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정 영역

응시계열별 수능 응시지정 영역

응시계열	수능 응시지정 영역
인문계열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과탐(2과목)
자연계열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예체능계열	[수시모집]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탐(2과목)/과탐(2과목)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정시모집] 국어, 수학(가)/(나), 사탐(2과목)/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이상 응시

- ① 전 응시계열 모두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단, 각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한 영역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②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수능 점수 반영 시, 사탐/과탐 모두를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 ③ 정시모집 기회균형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의 지원자는 직업탐구도 탐구영역으로 인정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안내

구분	지원자격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방법
입학 전 2년 이내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이상(고교과정 1개년 포함, 비연속 인정) 외국에서 수학 및 체류한 자(부모 거주기간 및 체류조건 있음)	60	필답 100% [인문계열] 국어/영어 각 50 [자연계열] 수학/영어 각 50 [국제학부] 영어 100
	6년 이상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초·중·고교과정 통산 6년 이상(고교과정 1개년 포함, 비연속 인정) 외국에서 수학 및 체류한 자(부모 거주기간 및 체류조건 있음)		
전(全)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한국어나 영어 어학 조건 있음)	약간 명	서류 100%

※ 원서접수 : 2017. 7. 3(월) ~ 7. 6(목)/ 필답고사(입학정원 2%이내) : 2017. 7. 15(토)

수시·정시모집 전형 안내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요소 및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위주(교과)	고교추천전형		480	1단계(4배수) : 학생부교과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면접 20%	×
	학생부위주(종합)	미래인재전형		841	1단계(4배수)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면접 20%	○
		고른기회전형		48		×
		사회기여자전형		15		
	논술위주	논술전형		545	학생부교과 30%, 논술 70%	○
	실기위주	어학특기자전형		60	1단계(4배수)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70%, 면접 30%	×
		과학특기자전형		54		
		국제학특기자전형		54		
		체육특기자전형		6	1단계(4배수)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면접 20%	○
		예체능실기전형		185	[성악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조형예술대학(디자인학부 제외)] 1단계(일정 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단계 성적 20%, 실기 80%	
		예체능서류전형		70	[디자인학부] 서류 100% [체육과학부] 1단계(4배수)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소계(정원 내)			2,358		
정시 모집 (‘가’군)	수능위주	수능전형		417	수능 100%	×
	실기위주	예체능실기전형		234	수능 40%, 실기 60%	×
	수능/실기위주	기회 균형 전형 (정원 외)	농어촌학생	(110)	[인문, 자연계열] 수능 100% [예체능계열] 수능 40%, 실기 60%	×
			특성화고교 졸업자	(3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		
			장애인등대상자	(15)		
	소계(정원 내)			651		
총계(정원 내)			3,009			
총계(정원 내 + 정원 외)			3,189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등은 법령 제·개정 또는 학사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에는 2016학년도 미충원 인원 5명이 포함되어 있음

※ 2018학년도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전형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람



수시우수입학 장학금

수시모집 최초합격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전형별·계열별 수석은 4년 전액 장학금, 전형별·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상위 20% 이내는 1년 장학금을 받는다.

E4 수시모집 논술전형, 고교추천전형, 미래인재전형, 어학특기자전형, 과학특기자전형, 국제특기자전형의 계열별 수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모두 지원한다.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유형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E1 수시모집 논술전형, 고교추천전형, 미래인재전형, 어학특기자전형, 과학특기자전형, 국제특기자전형의 모집단위별 최초합격 입학성적 상위 20% 이내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유형별·모집단위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정시우수입학 장학금

정시모집 수능전형의 최초합격생 중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위 50% 이내인 학생들 모두에게 4년 전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장학금!

W4 정시모집 수능전형의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최초합격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특별육성 장학금

이화의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장학금. 해당 학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살살이 살펴보자.

H의학인재 정시모집 수능전형의 의예과 최초합격생 전원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12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H스크랜튼학부 H스크랜튼학부4 장학금은 수시모집 각 전형별 스크랜튼학부 최초합격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8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시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H스크랜튼학부2 장학금은 수시모집 스크랜튼학부 최초합격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4학기 등록금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시 장학금을 지원한다.

H뇌인지전공 H뇌인지전공4 장학금은 수시모집 각 전형별 뇌·인지과학전공 최초합격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8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시 장학금을 지원한다. H뇌인지전공2 장학금은 수시모집 뇌·인지과학전공 최초합격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4학기 등록금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화가
새내기에게
쏟아!

신입생
장학금





나눔 장학금

H예체능인재 수시·정시모집에서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체육과학부에 수석으로 최초합격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입학금을 포함한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H엘텍공학인재 수시모집에서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사이버보안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에 합격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최초합격생 전원에게 입학금을 포함한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사이버보안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최초합격생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입학당해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또한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사이버보안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합격자 전원에게는 기숙사 입사 시 1년 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신청 필수, 지방학생 우선)

H이화미래인재 수시·정시모집 모든 합격자 중 우수한 학업역량과 미래 여성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입학금을 포함한 학부 8학기 등록금 전액과 월 5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방학생의 경우 기숙사 배정은 물론이고 기숙사비까지 지원하니, 이화의 미래 인재라 생각하는 합격생은 꼭 지원해볼 것(성적 및 가계 경제에 관한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참고).

H글로벌선도 수시·정시모집 모든 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지도자적 자질이 뛰어나며 해당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이화의 깜짝 선물 같은 장학금이다.

이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학금.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장학금들을 살펴보자.

A고른기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A이화가족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화 학부를 졸업한 학생,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이화 학부를 졸업했거나 자매가 현재 학부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입학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꼭 신청하도록 하자.

※ E, W 장학금과 H 일부 장학금은 최초 합격자 기준.
계속 수혜 기준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할 것

입학부터 진학까지, 전주기 장학제도

학부 입학 - E·W·H·A

- E 수시우수입학 장학금
- W 정시우수입학 장학금
- H 특별육성 장학금
- A 나눔 장학금

재학

- 단과대학 수석, 차석
- 전공 수석
- 최우수·우수
- 단과대학특성화
- 전공리더십
- 면학·봉사·고시·해외탐사 지원
- 이화미래설계

석사 입학

- 우수이화인
- 우수이화과학인
- 학·석사연계
- 특수대학원 특성화

재학

- 연구조교
- 학생조교
- 특수대학원 특성화

연구 및 논문 지원

- 우월 김할란 21세기

박사 입학

- 이화연구엑셀런스
- 우수이화과학인

재학

- 연구조교
- 학생조교

연구 및 논문 지원

- 우월 김할란 21세기
- 해외연구논문 집필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

이화인의 경제적 고민에 대해 함께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를 통해 이화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화미래설계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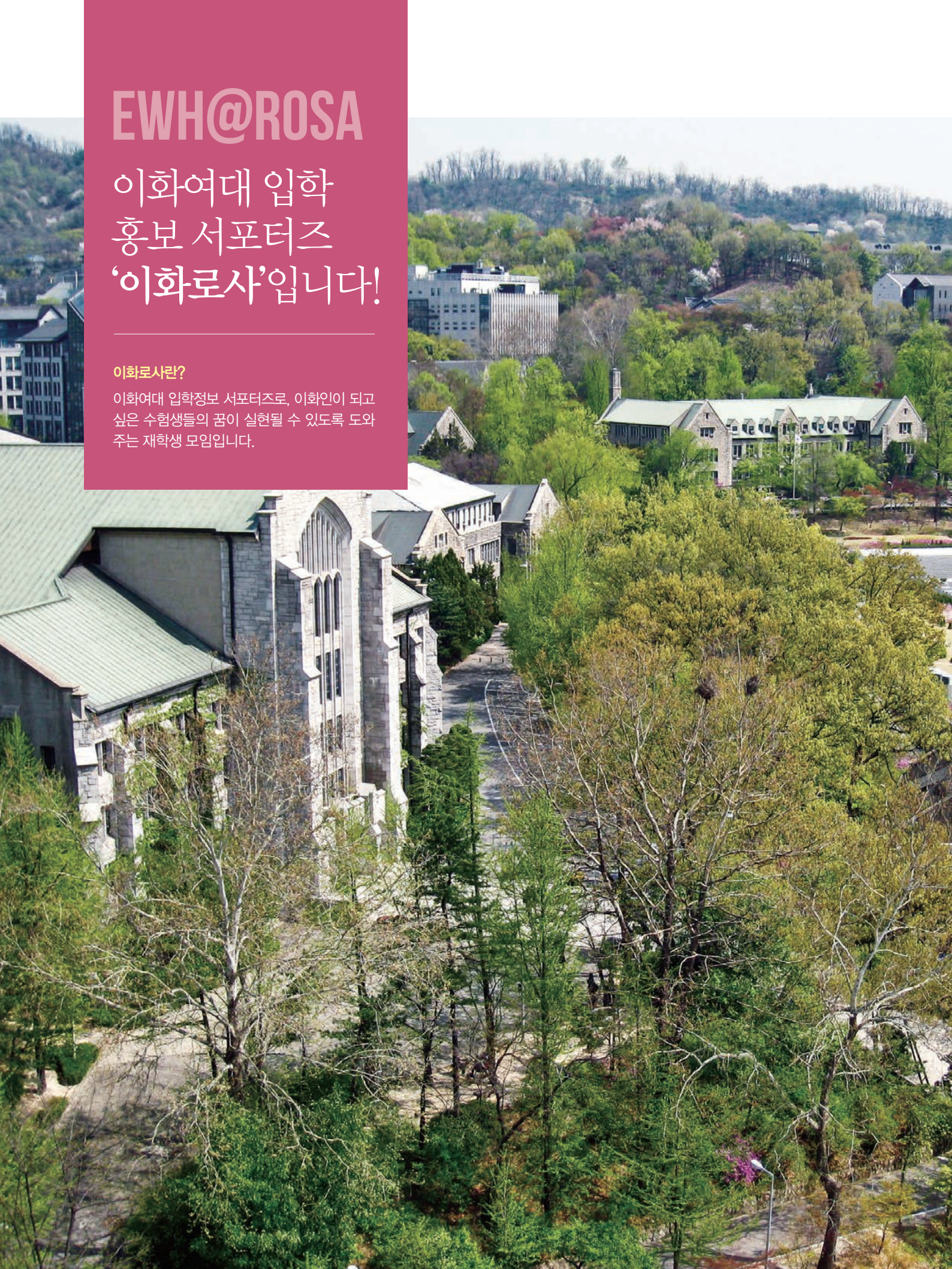
이화인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미래설계를 적극 지원하는 장학제도. 학생이 자신의 꿈과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고민을 담은 미래설계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EWH@ROSA

이화여대 입학 홍보 서포터즈 ‘이화로사’입니다!

이화로사란?

이화여대 입학정보 서포터즈로, 이화인이 되고 싶은 수험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학생 모임입니다.





이화로사를 만나는 방법?



이화로사 블로그

이화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지 궁금하다면, 이화로사 블로그를 구독해 주세요! 다양한 학과에 대한 소개, 이대생의 소소한 일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화로사 온라인 멘토링

이화여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 관심 있는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청해 주세요.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화로사 오프라인 멘토링

토요일에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과의 맞춤형 멘토링이 개최됩니다.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본인의 진학 희망 학과의 재학생들에게 직접 이화여대와 해당학과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화로사를 만날 수 있는 날

이화로사는 이화여대 고교방문 설명회, 입시박람회에 재학생 대표로 참여합니다.

이화여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로사 관련주소

•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ewharo_sa
네이버 검색창에 이화로사를 검색해 보세요.

• 홈페이지 주소

<http://admission.ewha.ac.kr/enter/doc/ewharo/studentMentor01.asp>
이화여대 입학처 페이지 – 입학정보 이대로
이화로 – 재학생 멘토링
(이화로사/모교방문단)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